

2호

한문연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인 차철욱

전 화 051-510-1882 팩 스 051-581-5655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051-510-1932

Contents 01 | 인문 02 | 학술활동 03 | 사업 04 | 학술지 05 | 구성원 동정 06 | 신간 소개 07 | 알림

人紋

“ 무경계의 아름다움 ”

얼마 전 기말시험 시간에 왼손으로 깨알같이 글씨를 써 내려가는 학생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듯 요즘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 내 가족 중에도 ‘왼손잡이 사나이’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건대 ‘왼손잡이’는 매우 터부시되었다. 그런 관습 탓인지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 삼았고 왼손 쓰는 일은 얼마지 않아 중단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반드시 오른손을 써야 한다는 건 ‘가치관’이자 관습이다. 그것은 공동체적 믿음에서 비롯한다.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두 손을 다 써서 일을 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 다 자연스럽다. ‘좌타’(왼손 쓰는 타자)도 있고 ‘우타’도 있다. 때로는 ‘우타’가, 때로는 ‘좌타’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우투’, ‘좌투’도 있다.

‘오른손’을 의식해서 ‘왼손’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개별자적 사정이나 특성을 눈여겨보는 시선이 자연스럽다. 어떤 이념에 매이면 자연스러움을 놓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오른손은 옳고 ‘왼손’은 ‘아니다’라는 선입견은 그야말로 ‘아니다.’

‘인문(人文)’은 ‘인문(人紋)’이다. 그것은 사람이 빚어내는 다양한 무늬 결이다. 인문 저편의 ‘천문(天文)’만 자연 결이 아니다. 인문도 천문처럼 다양각색으로 자연스럽다. 다만 그 발견은 보는 자의 시선에 의존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목에 ‘무경계’가 필요하다. 거기서 인간의 자연스런 결들이 ‘미적 경계’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것을 기대해본다. 📖

학술활동

학술대회

주제: 주변부, 지역, 여성



일시: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3:00-18:00)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주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사)무형문화연구원

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학 강좌: 근대신문으로 낙동강 읽기



일시: 2023년 4월 18일 ~ 27일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장소: 금곡도서관 다목적실
주제: ① 낙동강, 낙동강 사람들
② 낙동강 하류의 홍수 피해와 하천 개발
③ 낙동강 개발 재난과 재해 대책
④ 낙동강과 함께 살아가기

인문 체험: 천연염색 물들이기



일시: 2023년 4월 22일·29일
(토요일 10:00-12:00)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랫폼 2층
주제: ① 천연염색의 개념과 염재의 종류
② 실k scarf 염색

사업

청소년 UCC 공모전 시상식

일시: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11:00)
장소: 북구 화명도서관 교양강좌실
대상 | 모두 줍깡하킴팀(가람중 권가은 외 3명)-환경보호의 달인
금상 | U환경팀(가람중 박민지 외 6명)-제로웨이스트를 활용한 생활 속 실천
은상 | 로켓단팀(주례여중 문하람 외 4명)-단 하나의 실수
동상 | 우리가 1등이다팀(신덕중 강예영 외 3명)-집으로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29집(4월 30일 발간) 논문



1. 문혜진, 「부산 가덕도 송어들이 어업과 해양신앙—대항어촌계 송어들이 마을어장의 소멸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며」
2. 이현정, 「부산의 문화 ODA와 아시아 영화인재 육성」
3. 정은정, 「고려 중기 多京의 위상—首位性を 중심으로」
4. 하상복, 「불평등한 공간으로 변모한 포스트식민 도시—메자 음향기의 『빨리 죽어주요』」
5. 김필남, 「태국영화에 재현되는 태국의 양면성—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태국영화들을 중심으로」

구성원 동정

임면

연구소

보직명	이름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전임연구원	장혜진	2023.05.01.- 2024.04.30.	2023.05.01.	재발령
전임연구원	장하원	2023.04.01.- 2025.03.31.	2023.04.01.	재발령
전임연구원	양순임	2023.04.01.- 2025.03.31.	2023.04.01.	재발령
객원연구원	이효형	2023.04.01.- 2025.03.31.	2023.04.01.	재발령
연수연구원	원주영	2023.03.01.- 2023.05.31.	2023.06.01.	면직(중도퇴사)

학술활동

문재원, '산업화의 역군'과 '산업화의 외상', 그 사이-70~80년대 '여공'의 자기발화와 정체성, 그리고 생애사, "주변부, 지역, 여성", (사)무형문화연구원·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2023.06.23.)

오현석,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도관 양성을 위한 월간『형정』의 매체 전략 연구, "동아시아, 국민국가 그리고 신성모독의 서발터니티",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발표(2023.05.20.)

오현석, 월간『새길』수록 연재소설『빨치산』 연구, "부산 문화예술사의 재구성2", 한국문화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2023.06.16.)

이근열, 일본전관거류지 용두산, 용미산 변천 연구, "한국지명의 유래와 변천", 한국지명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 발표(2023.04.22.)

장혜진, 시민성 교육의 기초로서 '자아리터러시' 교육의 가능성 검토-듀이의 성장하는 도덕적 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윤리학과 윤리교육", 한국윤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2023.05.19.)

차철욱, 1950-60년대 부산경제와 일자리, "주변부, 지역, 여성", (사)무형문화연구원·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2023.06.23.)

차철욱, 아미동 비석마을 주민의 생활경험과 마을만들기,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마을공동체", 민주주의사회연구소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발표(2023.06.29.)

저역서·논문

저서

이름	제목	출판사명	발간일
박태원, 김영미 외	다불설아미타경소 외	세창출판사	2023.06.
박태원, 김영미 외	대해도경종요 외	세창출판사	2023.06.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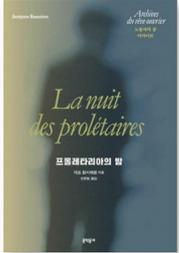
이름	제목	학술지명	발간일
김영미	불교 명상의 대중화방안 연구	『불교철학』, 12	2023.04.
공윤경	부산 지역자산의 활용 유형 및 특성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3(2)	2023.06.
이근열	부산 절영도 지명 변천 연구	『동남어문논집』, 55	2023.06.



신간 소개

프롤레타리아의 밤 (원제: *La nuit des prolétaires*)

자크 랑시에르 | 안준범 옮김 | 문학동네 | 2021.01.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는 『불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감성의 분할』 등을 통해 ‘정치와 미학의 동종성’, ‘불화와 정치적 주체’ 등을 설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문자 주체들’의 목소리를 주목하였다. 『프롤레타리아의 밤』은 그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데, 소문자 주체들의 목소리 듣고, 그들의 꿈을 뒤쫓아 간 일종의 대서사시이다.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830년 7월 혁명에 참여한 노동자들로부터 탄생한 생시몽주의 노동자 저널들과 거기에서 펼쳐진 생각과 사상에 대한 독해(1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해간 생시몽주의 실천들과 논쟁(2부), 마지막으로 이집트와 미국에서 시도된 이카리아 공동체 건설의 실패와 그에 따른 환멸(3부)을 다루고 있다. 랑시에르가 만난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자의 전형성을 담지한 집단화된 표상을 벗어난다. 그는 노동과 휴식의 정상적 연쇄를 교란하고, 낮의 시간이 사유를 위해 주어져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사유의 가능성과 사례를 제시한다. 시인이자 목수인 고니, 양재사 데지레 베레, 내의 제조공 잔 드루앵, 계량 용기 제조업자 피에르 뱅사르 같은 다양한 인물들이 이질적인 목소리들의 주인공들이다. 랑시에르는 이들을 주목하면서 ‘할당된 자리’에서 ‘자리를 벗어난 말하기’라는 파열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선은 ‘대문자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동일성 담론을 비켜나오는 로컬리티의 서사에 주목하는 로컬리티 연구와 상통한다.

대천마을을 공부하다-어울림의 기쁨을 아는 열두 명의 마을 사람들 이야기

신아영 | 호밀밭 | 2022.12.



10여 년 전 부산 북구 화명동 대천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을 토박이 윤희수 옹이 쓴 일기의 출판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 무렵 대천마을공동체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출발이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었고, 대천마을에 뿌리를 내린 후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끔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 내 다양한 사건이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럼에도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잘 유지되는가가 항상 궁금했다.

『대천마을을 공부하다-어울림의 기쁨을 아는 열두 명의 마을 사람들 이야기』는 대천마을공동체가 지속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저자 신아영은 어린시절 마을에 들어와 자랐다. 한때 주변 신도시로 이사하는 친구들이 부러워 마을을 떠나고 싶었으나 점차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삶터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마을기록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살기 위해 ‘공부’하고, 이 공부야 마을을 만드는 버팀목이었다고 생각해 책 제목에 ‘공부’를 사용했다. 이 책에는 12명의 마을 사람들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제각각이다. 20대에서 60대까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온 사람들, 나면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한 청년들까지 다양하다. 구술하는 사람 각자의 이야기이지만, 마을의 역사이고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2명의 주인공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을과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굳건한 공동체를 만드는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알림

1.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는 매년 3회(3·7·11월),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4·10월) 발간됩니다.